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이 인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2016년까지 30,000명 넘게 보고되며(Ministry of Unification, 2016), 우리사회에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이 증가함에 있어서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착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Lee, Park, Park, & Park, 2010). 이러한 어려움 속에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 사람과의 가치관 측면에서 차이를 느끼며,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에 의해 적응상 어려움이 가중된다(Yoon, 2007). 또한 남한사람들의 우월의식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적 열등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Choi, 2010).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후 20여년이 지나 국민정체성은 어느 정도 획득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계층적 균열 때문에 사회문화적 내적 통합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의 차원에서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수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고한다(Ko, 2010).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적응뿐 아니라 남한 주민들의 생각과 태도, 의견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은 실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와 권력 등에 있어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민자와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Kwon, 2011).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성인데, 이러한 문화적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일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수용할 의사가 높으며,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Yoon & Song, 2013). Kim(2015)의 연구에서도 통일인식 및 다문화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정책 및 수용성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이주민이면서도 동일한 민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과는 다르지만, 장기간에 걸친 분단의 현실로 남한 주민과 상이한 언어, 가치관, 생활방식, 이념 등으로 인한 차이를 단일민족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Kim 2015). Kim, Kim, Shin과 Yi(2011)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높고, 특히 20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어서 청년세대에게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ohn & Lee, 2012).

한편, 북한은 90년대 후반 경제사정의 악화, 홍수 재해로 인한 식량난 및 의약품 부족 등으로 결핵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였고, 2000년대 이후 국제기관과 국내에서 의약품이 지원되면서 감염병 발병률은 줄었지만, 여전히 만성영양실조, 빈혈, 결핵환자 등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Jeon, 2010).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정 중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태도, 간호대학생

* 본 연구는 2016년 한남대학교 교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is2009@hnu.kr)

투고일: 2017년 1월 24일 수정일: 2017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31일

에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로 보건 의료이용은 필수적인데, 이때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들을 접함에 있어서 그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Ackerman-Barger, 2010). 이는 학부과정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같은 민족이지만 반세기 이상 분단된 국가에서 지내왔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간호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들의 문화적 수용성 정도가 어떠한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하며 친밀감 및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거나, 다문화주의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를 조사하였다(Kwon, 2011; Lee, Choi, & Choi, 2010).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적응실태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Yoon, 2007),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Kim, 2015; Kwon, 2011; Yoon & Song, 2013)을 조사하였을 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미흡하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다문화 가정과 문화 다양성 인식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Cho, 2014; Seo & Choi, 2012; Yoon & Cho, 2012)가 몇 편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임상현장에서 차별과 편견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수용성과 한국인 정체성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이들이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질적인 삶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간호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문화적 수용성 및 한국인 정체성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문화적 수용성 및 한국인 정체성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문화적 수용성 및 한국인 정체성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충청지역에 위치한 3개의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 관련변인 7개의 조건에서 회귀 분석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최소 153명이었고,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184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 5부를 제외한 총 195부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 도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Hwang, Kim, Lee, Lee, & Choi, 2007)에서 실시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의 표준화된 설문도구와 Kim(2015)의 연구 및 Seo와 Choi(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에 맞게 본 연구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지향, 인상, 사회적 지지정도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도구는 Lynn(1986)이 제시한 전문가타당도의 평가 시 필요한 최소 전문가 집단의 수 3명 이상의 기준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북한이탈전문가 1인의 검토를 마친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북한이탈 주민 관계 지향도 8문항(수용성),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상(친밀감) 4문항,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지원 지지도(경제적 이해관계) 4문항의 3개 하부영역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문항은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7였다.

● 문화적 수용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Hwang, et al., 2007)에서 실시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의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도구는 Lynn(1986)이 제시한 전문가 타당도의 평가 시 필요한 최소 전문가 집단의 수 3명 이상의

기준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북한이탈전문가 1인의 검토를 마친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문화적 다양성 4문항, 문화교류 태도 4문항으로 구성된 총 8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역문항은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7이었다.

● 한국인 정체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Hwang, et al., 2007)에서 실시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의 설문 중 우리민족 및 국가에 대한 부분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도구는 Lynn(1986)이 제시한 전문가타당도의 평가 시 필요한 최소 전문가 집단의 수 3명 이상의 기준에 따라 간호학과 교수 2인과 북한이탈전문가 1인의 검토를 마친 후 사용하였다. 한국인 정체성은 우리 민족 및 국가에 대한 갖는 평상시의 태도로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1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H대학 IRB 심사(16-02-04-0630)를 통과한 후 각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에게 협조를 구하여 수업 전 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협조를 허락한 교수는 설문 시작 전 취약한 피험자 계층인 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방법, 설문조사의 익명성, 연구 철회 및 중단 및 수집된 자료 보관 및 파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후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 할 것이며, 조사된 자료는 연구를 위한 목적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대학 200명의 간호대학생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9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이 끝난 후 바로 수거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일반적 특성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 수용성 및 한국인 정체성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제 변수들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영향 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84.1%는 여학생이었으며, 1학년 26.2%, 2학년 25.6%, 3학년이 29.2%, 4학년이 19.0%였다. 대상자의 36.4%는 가톨릭 혹은 개신교 신자였고, 7.7%는 불교신자였으며, 55.9%는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 신자였다.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9.5%이며, 통일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3.8%였다. 북한이탈주민을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70.8%, 다문화 구성원을 한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9.2%였다(Table 1).

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문화적 수용성, 한국인 정체성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전체 2.74±0.37점으로 하위영역으로 친밀감이 3.36±0.50점, 수용적 태도가 3.11±0.58점, 지지적 태도가 2.75±0.43점의 순이었다. 문화적 수용성은 5점 만점에 3.25±0.49점으로 하위영역인 문화교류태도가 3.39±0.54점, 문화적 지향성이 3.12±0.66점이었다. 한국인 정체성은 4점 만점에 2.46±0.56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의 점수차이를 보면 다문화 교육 필요성 여부에 따라 필요성을 인식하는 군이 2.77±0.36점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군의 2.63±0.3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5, p=.033$). 통일을 찬성하는 군이 2.83±0.33점으로 반대군 2.64±0.39점보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t=-3.77, p<.001$)(Table 1).

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문화적 수용성 및 한국인 정체성의 관계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문화적 수용성($r=.26,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한국인 정체성($r=-.18, p=.036$)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화적 수용성은 한국인 정체성($r=-.32,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Table 1> The degree of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ttitude toward NKR	
			M±SD	F/t(p)
Gender	Male	31(15.9)	2.68±0.43	-0.97
	Female	164(84.1)	2.75±0.35	(.335)
Grade	1	51(26.2)	2.76±0.35	
	2	50(25.6)	2.75±0.39	0.89
	3	57(29.2)	2.77±0.36	(.449)
	4	37(19.0)	2.65±0.36	
Religion	None or others	109(55.9)	2.74±0.37	1.50
	Christian	71(36.4)	2.77±0.36	(.226)
	Buddism	15(7.7)	2.59±0.43	
Education need	Yes	155(79.5)	2.77±0.36	2.15
	No	40(20.5)	2.63±0.37	(.033)
Unification attitude	Objection	90(46.2)	2.64±0.39	-3.77
	Agreement	105(53.8)	2.83±0.33	(<.001)
Experience NKR contact	None	136(70.8)	2.73±0.34	-0.35
	Have	56(29.2)	2.75±0.43	(.729)
Experience multicultural members contact	None	56(29.2)	2.73±0.37	-0.20
	Have	136(70.8)	2.74±0.37	(.839)

*Sheffé

NKR : North Korea Refugee

<Table 2>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cultural receptivity, nationalism (N=195)

Variables		M±SD	Rang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Receptiveness	3.11±0.58	
	Affinity	3.36±0.50	
	Support level	2.75±0.43	1~4
	Total	2.74±0.37	
Cultural receptivity	Cultural seeking	3.12±0.66	
	Cross cultural encounter	3.39±0.54	1~5
	Total	3.25±0.49	
Nationalism		2.46±0.56	1-4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195)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Cultural receptivity	Nationalism
	r(p)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1		
Cultural receptivity	.26 (<.001)	1	
Nationalism	-.18 (.036)	-.32 (<.001)	1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잔차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검토를 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4으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고,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는 0.015~0.316로 0.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했으며, 공차한계 (tolerance)가 0.891~0.913으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63으로 기준값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97, p<.001), 통일에 대한 태도(β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N=195)

Independent variable	B	β	t	ρ	F	ρ	R ²	Adj. R ²
Unification attitude	2.48	0.27	3.85	<.001				
Cultural receptivity	0.33	0.20	2.84	.005	14.97	<.001	.137	.128

=0.27, $p<.001$), 문화적 수용성($\beta=0.20$, $p=.005$)이 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13.7% 설명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간호대학생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남한사회에서 이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연구는 필요하다. 추후 임상에서 북한이탈 대상자를 사정하고 치료적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 편견 없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상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전체 2.74점으로 하위영역으로 친밀감이 3.36점, 수용적 태도가 3.11점, 지지적 태도가 2.75점의 순이었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Yoon과 Song(2013)의 연구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2.93점(4점), 수용도 2.30(3점), 지지도 2.88(5점) 점으로 지지도가 본 연구에서 다소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결과였다. Kwon(2011)도 남한주민의 3명 중 1명 정도만이 탈북자에게 친근하다고 보고했다.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주민과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분단 후 사회구조, 정치, 이념, 문화에 따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게 하고, 남한주민에게 역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 이질화의 길을 걸어온 남북한 주민들 간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질 북한이탈 주민에게 남한식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Yoon & Song, 2013).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하에서 살아온 생활양식, 생활 경험, 정서들의 차이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보다는 난민이나 이질감과 같은 감정으로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대학생은 북한이탈주민 우대혜택 제공에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Kim, 2015).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 태도 하위 영역 중 지지적 태도가 가장 낮아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 지지태도가 확립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더욱이 치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건강관련 전문가에게

는 더욱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수용성은 5점 만점에 3.25점으로 보통수준의 문화적 수용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위영역인 문화교류태도가 3.39점, 문화적 지향성이 3.12점이었다. 즉, 문화교류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우리나라에 이질적인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수용하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정체성과 사회통합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Yoon과 Cho(2012)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여러 이주민이나 북한이탈 주민 역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적응 노력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수용성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상자들을 접하게 될 간호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문화적 수용성은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단일민족인 한민족에 대한 긍정성을 묻는 한국인 정체성 점수는 4점 만점에 2.46점으로, Yoon과 Song(2013)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70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2015)의 연구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인 정체성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3.22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아직은 단일 민족인 한민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더군다나 간호대학생의 64%가 단일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내재되어 있음(Seo & Choi, 2012)을 미루어볼 때 타민족이나 이주민을 배타하며 자국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질감과 자부감이 아닌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해와 편견없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통일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3.8%로서 2014년 통일의식조사(Unification Attitude Survey, 2014)에 따르면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통일 찬성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한반도의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과 열망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

하기 위한 교육적, 체험적 노력은 필수적일 것이다. Kim(2015)의 연구에서도 평등을 지지하는 대학생은 다문화 사회를 지지하며,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어 통일, 다문화,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통일의 식조사보고서(Unification Attitude Survey, 2014)에 특히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고, 통일에 소극적인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과 같은 전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국가과업에 대해 즉흥적 논의보다는 꾸준한 국민적 관심사로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간호 대학생은 79.5%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문화 교육 필요성 여부에 따라 필요성을 인식하는 군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 Yoon과 Cho(2012)의 연구에서도 80.1%가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바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개방적인 태도로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통한 문화적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문화적 수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Kim(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했지만,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 정체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Kwon(2011)의 연구에서의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적 수용성은 한국인 정체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클수록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소극적임을 나타낸다. 이를 종합해보면 간호 대학생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보다는 이주자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정체성보다는 문화적 수용성을 키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문화적 수용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Yoon과 Song(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끝으로,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 수용성이 13.7%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밀감이 높아지고,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수용할 의사가 높으며,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Yoon & Song, 2013). 또한 통일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다문화의 장점을 더 많이 인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었다(Kim, 2015).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 수용성이 유의한 변수로서 선행연구(Kim, 2015; Yoon & Song, 2013)를 지지하였다. 의대생과 간호대생 및 관련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난민이나 이주민 집단의 의료 불평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문화적 겸손함을 스스로 발달시키는 것이 건강전문가들의 중요한 역량임을 강조하였다(Zanetti, Dinh, Hunter, Godkin, & Ferguson, 2014). 특히 미국의 Health and Human Service (HHS)는 2011년 ‘임상적 문화 역량’에 대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학생과 건강관리 제공자들에게 문화적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Betancourt & Green, 2010).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들과의 차이를 수용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도 키우는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꾸준한 국민적 관심사로 제고할 수 있도록 통일 인식을 고취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고 긍정적 태도로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문화적 수용성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간호대학생의 개방성과 포용성 증진에도움을 줄 것이다.

예비 간호사들인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임상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평등한 의료혜택이 없도록 균형잡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민족을 고수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한민족의 자부심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들과의 면담 기술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부과정에서만 아닌 임상에서도 일반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지도자와 관리자 등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로 평등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가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 대학생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없애고 다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이탈 주민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대상자 간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예비의료인인 간호 대학생의 태도를 알아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는 2.74점(4점), 문화적 수용성은 3.25점(5점)이었으며, 한국인 정체성은 2.46점(4점)이었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

는 문화적 수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했고, 한국인 정체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통일에 대한 태도, 문화적 수용성이 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13.7% 설명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민족으로의 민족적 관점을 넘어서 서로 다른 배경의 대상자로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개선이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일부지역 간호 대학생에게 비확률 편의추출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객관화된 결과를 위해 확대연구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 뿐 아닌 의대생과 의료 및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제한된 변인을 가지고 영향요인을 분석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개인적 특성이나, 문화적 역량 등의 추가 관련 요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북한이탈 주민에 긍정적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ckerman-Barger, P. W. (2010). Embracing multiculturalism in nursing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9*(12), 677-682.
- Betancourt, J. R., & Green, A. R. (2010). Commentary: linking cultural competence training to improved health outcomes: perspectives from the field. *Academic Medicine, 85*(4), 583-585.
- Cho, J. Y. (2014). Subjectivity on multicultural recogni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Health, 4*(1), 7-18.
- Choi, S. H. (2010). Social integration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ased on Germany's example.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3*(1), 161-190.
- Hwang, J. M., Kim, I. S., Lee, M. J., Lee, D. J., & Choi, H. (2007). *A survey on the ethnic / multicultural orientation of Korean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nual Report. 2-229.
- Jeon, B. J. (2015).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unification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buffering effect of national ident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173-183.
- Jeon, J. H. (2010). Tuberculosis patient defected North Korea that a Hanawon nurse sees. *The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57*(6), 42-45.
- Kim, K. H. (2015).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policies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mediating effect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rchives of Pharmacol Research, 31*(4), 1-27.
- Kim, H. S., Kim, D. Y., Shin, H. C., & Yi, J. Y. (2011). Psychoplogical adaptation of Koreans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effects of social identity, acculturationl-related ideologies, and intergroup contact on prejudice against migra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51-89.
- Ko, S. T. (2010). Popular perception of social integration level in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8*(2), 269-288.
- Kwon, S. H. (2011). Individu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immigrants. *The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tudies, 20*(2), 129-153.
- Lee, I. S., Park, H. R., Park, H. J., & Park Y. H. (201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4), 360-368.
- Lee, M. J., Choi, Y. J., & Choi, S. B. (2010). Multi-cultural society and social distance for foreigners in Korean society. *Survey Research, 11*(1), 63-85.
-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il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6.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North Korean defectors status [Internet]. Seoul: Unikorea; 2016 [cited 2016 November 4].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 Seo, J. Y., & Choi, G. Y. (2012).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Health, 2*(1), 25-32.
- Shon, A. L., & Lee, N, Y. (2012). A Study on the attitude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9*(3), 5-34.
- Unification Attitude Survey. (2014).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Yoon, I. J. (2007). Social Adjustments of North Korean migrants and measures to facilitate their resettlement.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0*(2), 106-43.
- Yoon, I. J. & Song Y. H. (2013). National consciousness and multicultural consciousness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migrants. *Studies of Koreans Abroad, 30*, 7-40.
- Yoon, M. S., & Cho, J. Y. (2012).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ultural divers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Health, 2*(2), 27-33.
- Zanetti, M. L., Dinh, A., Hunter, L., Godkin, M. A., & Ferguson, W. (2014). A longitudinal study of multicultural curriculum in medic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5*, 37-44.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Lee, In Sook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North Korean refugees (NKR) an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se attitudes. **Methods:** A total of 195 participant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ttitudes toward NKR was 2.74 out of 4 points; cultural receptivity was 3.25 out of 5 points; nationalism was 2.46 out of 4 points. Cultural receptivity ($r=.26$, $p<.001$) and nationalism ($r=-.18$, $p=.036$)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NKR. Unification attitude ($\beta =0.27$, $p<.001$) and cultural receptivity ($\beta=0.20$, $p=.005$) explained 13.7%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NKR.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multicultural perspectives. Furthermore, these findings might highlight the need for a nursing education program that could enhance understanding of pati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recognize their differences, going beyond a national point of view as commonly found in Korea. The nursing education program should also promote an open and receptive attitude.

Key words : Refug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ttitude, Nursing college, Stud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In Sook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461-6, Jeonmin-dong, Yuseon-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629-8806 Fax: 82-42-629-8806 E-mail: is2009@hnu.kr